

광주 남구 아파트 공시가 큰 폭 올라...전국 5번째

17.77% 상승...광주 전체 상승률 전국 2번째 효천지구 개발·주월동 재건축 공시지가 높여

올해 광주 남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주 남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 예정 가격은 지난해보다 17.77% 상승했다.

이는 경기 과천(23.41%),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국토부는 주거환경이 좋은 남구 봉선동 지역의 거주 수요가 증가하고, 효천지구

개발과 주월동 재건축사업이 공시지가를 높인 주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 남구에서 비롯된 높은 공시가격은 광주 전체 지역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광주의 경우 전국 평균(5.32%)보다 높은 9.77%의 상승률을 보였다.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여기에는 신규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고 교육과 교통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률과 달리 광주 지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4천 553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1억9천780만원보다 낮았다.
공시가격이 오를 만큼 공동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산정하게 된다"며 "시세 12억 원 이하인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를 올려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주에 있는 공동주택은 모두 42만3천 324호로 공시가격 1억 초과-3억 이하 공동주택(23만7천167호)이 가장 많았고, 1억 이하 공동주택(16만731호), 3억 초과-6억 이하(2만3천636호) 순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이날 오후 6시 이후 공개하고 소유자의견정취에 들어간다. /윤규진 기자

코스피	↑	2,155.68(+7.27)
코스닥	↑	755.42(+0.53)
원·달러·환율	↑	1,134.50(+5.00)
금리(국고채 3년)	↓	1.79(-0.01)



현대차, 친환경 수소사회 체험 '수소전기하우스 시즌 2' 개관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가 만들어갈 친환경 수소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했다.
현대차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기술과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만들어 갈 미래 수소 사회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수소전기하우스 시즌 2'를 부산 벡스코 야외광장에 개관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가 만든 에너지로 사는 집'을 콘셉트로 한 '수소전기하우스'는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를 통해 생성된 에너지를 일반 가정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구현했다.
현대차는 세계적 수준의 수소전기차 기술력을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수소전기차 및 수소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친숙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8월 서울 여의도를 시작으로 광주, 울산, 창원 등에서 '수소전기하우스 시즌 1'을 개관해 성황리에 진행했다.

528㎡(약 160평) 규모로 조성된 '수소전기하우스 시즌 2'는 △그린 존(Green Zone) △클린 존(Clean Zone) △키즈 존(Kids Zone) △익스피리언스 존(Experience Zone)으로 구성돼 관람객들이 수소와 관련된 친환경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수소전기하우스 시즌 2는 부산 벡스코 야외광장에서 14일부터 24일까지 총 11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 시간은 오후 12시부터~6시까지이다.
수소전기하우스 시즌 2는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등 전국 곳곳에 추가로 개관될 예정이며 특히 수소충전소가 새롭게 구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소전기하우스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갈대중 기자 dj2891@



1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에서는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특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완도군과 손잡고 협약식 및 '완도 특별전'을 진행했다. 신우철 완도군수와 박상영 롯데백화점 광주점 점장이 함께 완도특산물 전복을 살펴 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완도 어가 살리자” 롯데百 광주점 특별전

21일까지 완도 수산물 대전 개최... 우수 특산물 50여종 선보여

농·수산물의 수입산 대체가 확대되면서 지역 양식어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특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올해 첫번째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완도군과 손잡고 14일부터 21일까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대한민국 정경바다 수도 완도 수산물 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롯데백화점과 완도군은 14일 '완도 특산물 소비촉진 업무 협약(MOU)'을 체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완도지역 우수 특산물 50여종을 선보인다. 전복, 광어 등 완도의 대표 수산물과 다시마, 멸치 등 건어물을 시중보다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판매되는 특산물은 완도군과 사전 철저한 품질 검증을 거쳤으며, 행사기간 동안 한정행사 및 다양한 시식관 운영 등을 운영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완도군은 지난 2007년 '완도 특산물 판로 개척 및 전국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 지역 유통업계 최초로 광주점 식

품관에 완도 특산물 전용관을 운영했다.
또한 2014년부터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공식 후원 백화점으로 활동하는 등 지금까지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올해도 지역 상생 활동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영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완도지역 농어가의 판로 확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올해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중 기자 dj2891@

광주은행, 소상공인 위해 3천만원 출연

북구청·신보와 '소상공인 특별보증업무협약' 체결

광주은행이 북구 지역 소재 소상공인을 위해 3천만원을 출연했다.
광주은행은 14일 오후 2시 북구청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19 북구청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북구청 소상공인 특별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북구청 소상공인 특별보증 대출은 광주 북구청에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광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천만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15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기업은 북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도소매업·외식업·서비스업 등)으로 재단 또는 광주은행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율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0.8%로 우대적용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0.5%p까지 특별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1년간 북구청에서 2%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경기 침체 및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월 20일 광주시 골목상권 특별보증 지원사업에 5억원을 특별출연했으며, 26일에는 전남도 소상공인을 위해 10억원을 특별출연하기도 했다. /제갈대중 기자 dj2891@

코스피 외국인 대규모 매수에 상승...2,150대 안착

코스피가 14일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에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27포인트(0.34%) 오른 2,155.68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5.94포인트(0.28%) 오른 2,154.35에서 출발해 한때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혼조세를 보였으나 장 후반에 반등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천423억원, 3천5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4천551억원을 순매

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53포인트(0.07%) 오른 755.42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3.64포인트(0.48%) 오른 758.53에서 출발했지만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10월 8일(767.15) 이후 최고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14억원, 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개인은 265억원을 순매도했다. /연합뉴스

24시 콧모닝

보석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촉진
각종노폐물배출!

첨단중앙로152번길 31
☎ 0507-1662-2207